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산지서 강해

##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하박국 1장 12 - 2장 3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성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두 번째로 바벨론이 어찌하여 유대를 침략하는 일이 일어나느냐고 질문합니다. 바울의 목회서신이 간단명료하게 진리를 제시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하박국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통찰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할 때도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할 2:4).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한 위대한 말씀이며 신약에서도 세 차례(롬 1:17, 갈 3:11, 히 10:38)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당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쇠잔해지는 조국을 바라보며 어찌하여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유대인을 채찍질 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어찌하여 잠잠하시느냐고 부르짖습니다. 신약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4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생각하기 위해서 머무르라(Stop to think).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말부터 앞세웁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고 말씀합니다. 말을 먼저 하면 불신앙과 무지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 근본 원리를 다시 말하라(Restate basic principle).

언제든지 근본 원리에서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셋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원리를 적용하라(Apply principle to the problem).

여기서의 원리는 성경 원리를 말합니다.

넷째, 그래도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문제를 의뢰하라(If still in doubt, commit problem to God in faith).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의 결정을 스스로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 1. 생각하는 선지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13절).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할지라도 망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비록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위대한 사상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며 잠잠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12절).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아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유대 백성들을 경계하시기 위하여 세우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는 원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 2. 기다리는 선지자

“내가 내 과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2:1).

문제가 생길 때 문제만을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멀찍이 떼어놓아야 비로소 문제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깊은 생각 끝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너무 빠른 대답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이 모두 망한 것 같아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때가 오히려 복이 임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 칼빈은 믿음을 안정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려면 믿음의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2:2).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묵시를 붙잡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2:3).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선지자, 기다리는 선지자 하박국과 같이 생각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성경통독 사경회

## 신약성경을 본문으로 22일(목)~23일(금) 양일간

우리교회는 매년 설날 연휴 기간 중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성경통독사경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성도들이 참가하여 큰 은혜를 받고 있다.

올해도 설날 연휴기간을 맞아 22일과 23일 양일간을 성경통독사경회로 모이기로 하였다.

올해 성경통독사경회의 본문은 신약 성경 전권으로 4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등을 통독하게 된다. 성경통독사경회 참가비는 10,000원이며 접수는 사무국에서 한다.

금년 성경통독사경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가하여 함께 말씀을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 2004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 1월29일(목) 고등부를 시작으로...

고등부를 시작으로 각 교회학교가 1월 29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수련회를 갖는다.

교육 1국과 사랑부는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는 주제로 교회에서 2월 16일과 17일에 열리며 중등부는 승동기

도원에서 고등부는 연동기도원에서 각각 수련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타 세부사항은 다음 표를 참조하면 된다.

< 2004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

부서	주제	일정	장소	강사
유아부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	2월 16일 ~ 17일	교회	이중운, 박금실
유치부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	2월 16일 ~ 17일	교회	이중운, 이규정
유년부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	2월 16일 ~ 17일	교회	이중운, 이태훈
초등부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	2월 16일 ~ 17일	교회	이중운, 이성득
중등부	예수님 안에서 새생명!	2월 16일 ~ 18일	승동교회수련원	이중운, 윤영국
고등부	"Bom Again"	1월 29일 ~ 31일	연동교회수련원	이중운, 오정식
대학부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2월 12일 ~ 14일	갈보리 금식기도원	이중운, 서명철
청년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	2월 29일 ~ 3월 1일	장소미정	이중운, 이태훈
신혼가정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하늘 가정	2월 29일 ~ 3월 1일	장소미정	이중운, 이규정
사랑부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	2월 15일	교회	이중운, 이용식
에바디부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다	2월 29일 ~ 3월 1일	장소미정	이중운, 임규현

# 세례 준비반 및 학습반 안내

## 세례 준비반: 18일(주) 1부예배후 609호실에서 첫 강의 가져

본 교회는 등록한 학습교인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충실한 교육을 통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례 준비반'을 개설한다.

자격은 학습을 받은 모든 자들이고 입교(15세 이상), 유아세례자(부모대상), 개종을 하게 되는 성도들도 세례 준비반에 등록하여 총 8주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 교회 전도목사이신 서명철 목사가 담당하게 된다. 세례

준비반은 1부 예배 후 609호실에서 열리며 18일(주) 첫 강의를 갖는다.

한편 학습반기를 원하는 성도는 '새가족부'에서 8주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602호에서 1부, 2부 예배 후 2차례 교육을 한다. 학습 받으실 성도의 자격은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을 경과한 자로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 서울 강남노회 제직수련회

## 12일(월) 오전 10시 본당에서

우리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 제직수련회가 선한일꾼의 헌신과 자세(벧전4:7)를 주제로 내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홍성개 목사(동도교회)가 서게 된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 고등부 아이노스의 밤

## 1월17일(토) 오후5시

고등부는 1월 17일 오후5시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라는 말씀과 '짝사랑'을 주제로 아이노스의 밤(찬양의 밤)을 개최한다.

고등부는 이 시간을 전도에 적극 활용하기로 하며 NLC의 찬양과 수화찬양, 워십, 성극등을 준비하고 있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

# 15인승 승합차량 · 디지털 인쇄기 구입

우리교회는 성도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은혜와 더불어 각종 심방 및 모임의 증가로 15명 내외의 성도들이 함께 이동할 차량의 필요가 증가하고, 사무국에 의뢰되는 인쇄물량이 급증하여 더욱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 15인승 승합차(그레이트) 1대와 디지털 인쇄기 1대를 구입하였다.



▶ 15인승 승합차(그레이트)와 디지털 인쇄기

# 필그림 산악회 발족

필그림 산악회는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며 교제를 통한 화목함과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창설됩니다.

목사님께서 명명해 주신 '필그림 산악회'가 구성되어 성도들과의 교제 즉 화목함과 동역자로서의 일체감을 다지는 신앙적 구속감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행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주어짐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후 1층 로비에 집결한 후 청계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옛골을 시발점으로 매봉까지 이르는 산행시간은 왕복 2시간 코스입니다.

본 산악회는 신력(信力)과 체력(體力), 생활력(生活力) 혹은 실천력을 모토로 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과 건강을 다지고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슬로건으로 이웃과 직장 등 단체 산악회와도 자매결연을 맺어 만민에게 전도, 반약한 자를 구제, 천국시민 양성에 도움이 되는 산악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필그림 산악회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 남녀노소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열린 복음 전도단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행일치의 모범된 행동으로 모든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는 필그림 산악회의 주제가 되어 집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산악회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04 청지기 수련회

#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되어...

## 예배위원의 자세

청지기 수련회 첫날은 예배위원회 수련회로 시작되었다. 다음은 그 요약이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며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섬김 위원들은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봉사자라고 할 수 있다.

예배위원은 크게 예배부와 찬양부로 나뉘며 예배부에는 성례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이 소속되어 있다. 예배위원들은 예배 30분전에 경건회를 하고 기도로 봉사를 시작하며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므로 예배에 조금도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하고 특히 안내위원들은 교회의 얼굴이므로 기쁨과 감사의 표정으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야 한다. 물론 성도들께서도 안내위원의 안내에 잘 따라주어야 질서 있는 예배가 될 것이다.

예배와 찬양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 필수 조건이다. 찬양대원은 소명 받은 신앙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성숙 및 교회 음악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숙지할 것은 찬양대를 처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사설 운영되는 찬양대양성반을 수료해야 한다.(601호 매주일 1시)

우리교회 찬양부는 주일예배 시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헬(날성) 찬양대, 수요일예배 시 은빛(매달 첫 주 1부), 호신나(여성), 시온 찬양대, 이 밖에 발인예배시 찬양을 담당하는 갈렐찬양대, 목회자세미나에서 강의 전 찬양을 인도하는 글로리아 찬양대, 3부 청년 예배전 찬양을 인도하는 펠그림 찬양대 또한 주일 2부예배시 헌금송을 담당하는 그레이스 핸드헬 콰이어, 3부예배 헌금송을 담당하는 아델관현악단이 있다.

모든 예배위원들은 예배를 섬기는 책임을 잘 지켜 질서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겠다.

## 전도위원회의

전도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다. 따라서 전도는 모든 청지기들의 책임과 의무이다. 전도위원회는 주일교회에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전파의 일을 부여받은 부서이며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움 받은 거룩한 일꾼들의 조직체이다.

먼저 전도위원은 사명자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주의 일을 우선해야 한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 주장하려는 자세를 피하고 교회에 순종하며 편과 당을 만들지 않으며 복음에 유약하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교회의 전도위원회는 크게 전도부와 선교부로 나뉘며 전도부에는 남녀전도회(나이별 분류), 70인 전도대(수요

##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청지기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새벽에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김운호 목사님의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있었다. 약150여명의 많은 참여 속에 웨스트민스터 홀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기가 가득했다.

2004년 교육목표인 '천국시민 양성'은 서울교회 3대 목표 가운데 교육의 모토가 된다. 영적 교사의 역할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특히 신행일치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의 진실 됨과 감화는 학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 안에서의 비전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와 통찰력으로 유능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습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항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의 교육목적을 이루는데 늘 준비된 교사로서의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이었다.

한편 교사는 자신의 내실화에 힘써 모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아울러 부서 성장 방안을 잘 활용해 전도, 홍보, 전교인의 교회학교 참석하기 운동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피켓홍보를 통해 장년부의 참여를 높여 줄 것과 학교별 다락방 창설을 통한 중고등부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했다.

이러 교사의 의무 사항을 잘 지켜 중보 기도와 가능한 한 사랑을 품은 전파 심방을 통한 대화가 되도록 할 것과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친절한 언행을 쓰고 명찰을 달아 신뢰를 가 지게 하며 의모에 단정하여 교사의 품위를 지켜 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학생중심, 학부모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며 행동하여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으로 철저히 지도하고, 교육하며, 헌신하는 교사가 될 것을 끝으로 간절히 소원하였다.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이뤄지는 한해가 되도록은 교회의 기도를 부탁한다.

전도대, 수요야간전도대 목요축호전도대, 토요전도대, 토요야간전도대, 중보기도팀, 문서전도대), 전도학교, 농어촌전도를 위한 파송대가 소속되어 있고, 선교부에는 김치세미나, 해외선교사파송지원부, 농어촌100교회 지원부, 직능별선교회(이미웅선교회, 실업인선교회, 의료선교회, 학원선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도위원회의 소속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전도위원회는 전 교회에 전도하는 분위기를 확장시키며 지속적인 배가운동을 통해 민족복음화의 모델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부터 솔선하여 전도 동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전도위원회의 올해 목표는 전도 2,300명, 태신자 2000명이다.

허숙, 유명희(편집부)

(교구일꾼, 섬김위원은 다음주에 계속)

#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윤승은(고등부)

2004년 1월 3일 토요일.

2004년 처음 하는 봉사.

광야교회에 도착했다는 소리에 반가워 얼른 내렸는데 사방은 파이프, 철공소로 둘러싸여있고 주위에 담배꽂초와 깨진 술병들로 지저분하였고 옆에서는 노숙자들이 한 줄로 서서 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광경에 익숙하지 못해서인지 얼굴을 찌푸리게 되었고 계속 눈이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 깨끗할 거라고 믿고 얼른 들어갔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와 구석구석에 누워 있는 수십 명의 노숙자들을 보고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도 뒤에서 느껴지는 노숙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명희 목사님의 설교는 저의 노숙자에게 단혀져 있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곤 광야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노숙자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도 많았고 목사님께서도 위험에 노출된 일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노숙자들의 수도 갈수록 늘어나 밥을 굶을 때도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노숙자들의 구원을 더 중요시해서인지 1년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려를 꺾고 13년째 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회의 소외된 자들과 낙오자등 많은 사람들이 광야교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말씀을 다 듣고서 왠지 처음에 노숙자들을 향해 찌푸리고 짜증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는 임명희 목사님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 광야교회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고등부학생들과 오정식 목사

만민에게 전도하는 교회-70인 전도대

#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 장기속 성도(교구)

2001년 4월 서울 교회에 등록을 하여 8주간 새가족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유년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7기 전도학교 교육을 수료했는데 교육 동안 아이의 친구 어머니들을 전도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은 저의 딸 현주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1학년 때 입학할 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학교 일도 하면서 조심스럽게 서울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걸 때마다 빈정거리듯이 '현주 엄마나 예수 믿고 천당 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는 마음이 좀 언짢았지만 웃으면서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같이 가려고 그러지!'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기를 1년 2

년 지나면서 조금씩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에 대해 배려를 많이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학부모 모임도 저를 위해 수요예배, 구역예배, 토요 어린이 전도하는 날은 제외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맞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년부에 있는 딸을 통해 딸의 친구들을 먼저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딸 친구 가운데 서린이와 여진이가 집에 가서 '예수님께 예배 드려요'라는 글을 써서 냉장고에 붙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엄마가 일등으로 좋았는데 이제는 네 번째가 되어,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엄마도 나를 네 번째로 좋아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같이 교회 가자' 고 했습니다. 나는 기뻐하길 바라며 그의 엄마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말부터는 70인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대치현대 전도를 맡으신 이권사님을 따라 다니면서 현대아파트를 가가호호 오르내리면서 도장이 찍힌 순례자를

돌렸습니다. 저는 전도 경험이 풍부한 권사님을 모시고 자연스럽게 서린이네 여진이네 경원이네 준영이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권사님은 방문한 그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고 70인 전도대에다 중보기도를 부탁 드렸습니다. 사명자대회의 태신자 초청일 까지는 꼭 교회로 인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초청 주일 전인 토요일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다 주일날 교회 꼭 오겠다는 약속은 받았으나 밤새 여러가지 생각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에 다시 전화해서 11시까지 교회 1층 로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9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유년부 예배를 마치고서 11시에 1층으로 내려가니 앞의 두 아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12월 7일 이 분들은 등록했으며 나머지 두 아이 어머니는 나중에 다락방 예배를 저희 집에서 같이 드렸는데 당분간은 다락방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전도가 가능하도록 기도해 주신 전도대원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하는 교회-비전2020운동

## 비전2020운동을 위한 전도 편지운동



"답장 없는 편지를 매달 여러 통 쓰려니 기운이 빠지는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쓰는 편지가 언젠가는 풍성한 전도의 열매로 맺힐 그 날이 오리라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본 적도 없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담은 귀한 편지를 쓰 보내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다. 그 주인공은 김혜란(팀장) 손성실, 윤용미, 김준순, 김동진, 안미경 등 6명의 여집사님들. 이들은 오는 2020년까지 우리 민족의 75%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때의 가장이 될 60만 현역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 2020운동"에 동참

하며 이 일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훈련소에 입소한 신병들 가운데 진중세례를 받거나 신앙이 있는 신병들의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명단을 기독교 군선교연합회로부터 받은 뒤 이들이 있는 부대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부터 쓰기 시작한 편지는 그동안 보낸 양만 따져도 집사님 한 명당 백여 통에 이른다. 힘든 환경에 있는 병사들이 신앙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보내는 편지이므로 그 안에 담긴 정성도 각별하다.

"처음에 신병의 집으로 전화를 해서 가족들한테 부대의 주소를 물어보면 친절히 가르쳐주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됩니다. 통화 자체가 안 될 때도 많고요. 일단 부대주소를 알게 되면 그 때부터 그 병사가 제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답장을 받아본 적은 거의 없어요 거기다 전역한 뒤로 다시 통화를 해봐도 편지를 보고 교회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는 별로 없더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워낙 적은 것에 고민하던 6명 집사님들은 언젠가는 목사님(담당:이규정 목사)과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목사님, 우리가 너무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요. 다른 분들이 이 일을 맡았으면 열매가 많을 수도 있는 일을 우리가 괜히 붙잡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있던 지 얼마 안 된 지난 10월, 기쁜 소식이 들렸다. 경기도 포천의 한 부대에 복무하던 한 청년이 편지를 꾸준히 받고 전역 후 우리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

이다. 편지운동을 시작한 지 일년여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열매인 셈이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멀리 내다보고 해야겠죠. 전도의 열매가 언젠가는 맺힐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말입니다. 일이 어렵진 않아요. 다만 열매가 적어 송구할 뿐인데 이제 하나둘씩 열매가 보이니 감사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의 한 부분을 겸손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들의 손길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복음의 편지를 읽고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날이 오길 기도한다. 김민철(편집부)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교회 창립 이래 첫 휴가를 이번 주부터 갖게 된다. 목사님의 영육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 이 목사는 2003년 연신을 빛낸 자랑스런 동문상을 12월 연세동문회관에서 받는다.
- 득녀:6교구 총상준 김수연 성도
- 주간식당봉사: 금주-권사희, 다음주-빌립 남성교회
- 금주의 식사: 김동자 권사 가정(살림권사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 윤봉준 장로 가정(법사에 감사하며)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li> <li>■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li> </ul>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li> <li>■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li> </ul>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산나넷 - <a href="http://hosanna.tv">http://hosanna.tv</a></li> <li>■ 기독교 TV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li> </ul>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말은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새해에는 최상의 선택만 할 수 있도록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